

「眞實」論爭과 人文精神

金 周 漢*

〈차 례〉

I. 緒 論

2. 韓文詩歌의 경우

II. 眞實論爭과 人文精神

III. 結 論

1. 漢詩文의 경우

I. 緒 論

한국 문학비평에서 참과 거짓 곧 眞實에 대한 논쟁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여 一大 公案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크게 보면 지식의 보편화에 의한 자기 각성과 기득권 세력들의 자체 분열에 의한 마각의 노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추세가 상호 작용하여 참과 거짓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으며, 특히 기득권 세력들의 자체 분열에 의한 마각의 노출이 우세했다고 본다.

李成桂의 권력 탈취이후 利와 名까지 독점한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보호의 명분과 기득권 유지 논리를 교묘하게 분식 위장해 왔으나, 良心 세력의 끈질긴 비판과 개혁의 요구에 참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物化했기 때문에 그 立地가 갈수록 좁아졌던 것이다. 곧 비이성화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결과로 자기 반성의 기회를 상실하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임기응변과 인순고식의 대응밖에 못했기에 全局을 통찰하지 못하고 局地戰으로 자체 분열의 길을 걸었다.

*영남대학교 교수

그 당연한 응보로 倭人의 침략을 입었으며, 이 전대 미문의 대전란을 당했으며 중국 대륙의 세력 판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丙子胡亂이란 미증유의 전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전란을 겪으면서 기득권 세력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어 일반 서민들도 과거의 믿음이 허망했음을 알게 되었고 속았음을 알게 되었다. 거짓이 도처에서 파탄을 일으키니까 일반 서민들이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었고 이를 본 서민들은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삼게 되었다.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이런 분위기를 미리 파악하고 自省의 계기로 삼았으며 이런 기운이 중인 서민들에게로 흘러갔으며 급기야는 문학에까지 흘러들어서 문학의 참과 거짓에 대한 반성을 강하게 시도했던 것이다. 이 글은 문학 분야의 참과 거짓의 논쟁이 인문정신의 발양과 자기 인식에 얼마나 기여했나 하는 것을 알아 보고자 하여 쓴 것이다. 한시문과 韓文詩歌에 관련된 것을 주로하여 살피고자 한다.

II. 眞實論爭과 人文精神

朝鮮 前期의 性理學이 다룬 主題는 人類 心性の 善·不善·惡에 관한 것이었다. 심성이 物化하는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분석하고 또 왜 심성이 物化하는가 하는 원인을 밝혀서 物化를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문학도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관점이 대세를 이루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또 진정한 학자들이 거짓없이 노력을 해도 사람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 부류들이 이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저간의 사실이었다. 孔·孟·程·朱는 권력 쟁탈전에 이용되기 일쑤였고, 권력자들은 잘못된 것은 孔·孟·程·朱에게 미루어 버리기에 이런 음모와 간계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원망의 화살을 공·맹·정·주에게 쏘아대는 것이 통례였다. 따라서 때로는 공·맹·정·주가 원성을 들어야 하는 일종의 방패가 되어야 했다. 실로 거짓의 극치를 보게 된다.

人文精神의 核心이 바로 良心이다. 바로 仁義禮智信 등으로 표현되는 善性이다. 그런데 善良으로 가장, 위장한 부류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참과 거짓이 뒤섞이고 거짓이 참을 대신하는 사태까지 빚게 된다. 羊頭狗肉이 생기게 된다. 羊頭狗肉은 生命存在世界를 움직이고 지탱하는 근본정

산이 못 된다. 이 생명존재 세계는 참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거짓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다. 거짓은 生命이 自己保存을 위해서는 배척해야 하는 것이다. 때로 생명의 껍데기나 일부분에서 거짓이 깃든다고 해도 그것이 본래의 모습은 아니다. 따라서 거짓이 판을 칠 때는 생명존재가 자기 본래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짓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거짓이 제거되면 참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 참을 본질로 하는 仁義禮智信의 능력(德)을 가진 인문정신은 여러 가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꽃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인문정신 그 자체가美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름다움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짓은 생명 그 자체가 스스로 제거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때 악용하던 거짓을 버리고 참을 찾게 된다. 이것이 인문정신의 본래 면목이다.

이 생명세계는 인문정신 그 자체이기에 生, 成, 消, 滅의 순환을 자기 자체로 반복한다. 인문정신은 바로 自足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消와 滅의 과정에 不美가 더러 드러나고 眞이 생길 수는 있어도 인문정신의 自生力, 自成力 등은 참이요 아름다움 그 자체이다. 이런 생각을 단순히 논리적·자연과학적 사고로만 판단하려 하기에 관념적이다. 추상적이다. 허망하다…… 등으로 표현하지만 眞知를 동원하면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논리적, 자연과학적 사고 그 자체가 전혀 가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진리의 아름다움을 파악하고 감상하는 데는 원만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漢詩文에 대한 眞實論爭과 韓文詩歌에 대한 진안논쟁의 예를 들고 그 논쟁이 인문정신의 美的 측면 발전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1. 漢詩文의 경우

시는 참으로 당의 시를 배워야 하지만 당나라의 시와 비슷할 것까지는 없다. 당나라 시인의 시는 성정이 발흥할 때 대상에 기탁하는 것을 주로 했지 전고 용사나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에 힘을 쏟지 않았기에 본받을 만한 것이다. 그러나 당나라 사람은 당나라 사람이고, 현재 우리는 우리다. 세월이 천백년이나 떨어졌는데도 그 소리와 기분·정조가 같지 않은게 하나도 없고자 한다면 이는 이치로 보나 추세로 보나 불가능한 것이다.

억지로 닮으려고 하면 나무나 흙으로 빚어서 사람과 닮게 한 것일 따름이다. 그 겉모습은 그럴듯 하지만 그 실천적인 모습은 없어진다. 어찌 귀하게 여기겠는가?

詩固當學唐，亦不必似唐。唐人之詩主於性情興寄，而不事故實議論，此其可法也。然唐人自唐人，今人自今人。相去千百載之間，而欲其聲音氣調，無一不同。此理勢之必無也。強而欲似之，則亦木偶泥塑之象人而已。其形雖儼然，其天者固不在也。又何足貴哉。¹⁾

이 글은 金昌協(A.D 1651-1708)의 주장이다. 당나라 시인의 시는 用事나 議論, 곧 說理를 주로 하지 않고 性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興), 시적인 대상 사물에 붙이기 때문에 억지로 꾸며서 뜯어 맞춘 흔적이 없다는 말이다. 억지로 뜯어 맞춘 시는 나무로 깎아 만든 인형이거나 진흙으로 빚어 만든 형상에 지나지 않으니 生命이 없다는 뜻이다. 思考의 천착이 심하면 성정의 자연스런 모습, 생명의 본래 상태를 떠나게 되어서 생명없는 껍데기가 된다는 것이다.

좋은 시를 남보다 많이 남겨야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才不逮意가 되면, 원숙한 시적 창작 심성에서 시가 나오지 않기에 「其天者固不在也」라고 했다. 시가 무엇이기에 위와 같이 주장했던가 농암 김창협은 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시는 성정의 발로이며 천기가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당나라 시인의 시는 이에서 얻었기에 초당·성당·중당·만당의 시를 막론하고 모두 자연스러움에 가깝다. 오늘의 시인들은 이를 모르고, 오로지 청각이나 시각에 반영된 모습·의상이나 흉내내려 하고 힘만 들여서 옛 시인의 경지를 따라 잡으려고 한다. 그들의 시가 시각이나 청각에 반영된 것, 곧 소리나 외형 묘사는 엇비슷하게 되지만 깊은 정감의 발흥과 대상과의 어울림 차원에서 보면 전혀 비슷하지도 못하니 이게 명나라 시인들의 실수이다.

詩者性情之發而天機之動也。唐人詩有得於此。故無論初盛中晚，大抵皆近自然。今不知此，而專欲摸象聲色，顰蹙氣格，以追踵古人，則其聲音面

1) 農巖集 卷之三十四, 雜誌, 外篇. 景文社, 1980.9.15

貌雖或彷彿，而神情興會都不相似，此明人之失也.²⁾

이 글에서 우리는 농암이 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당시 시인들이 쓰는 시를 어떻게 보고 비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시는 성정의 발로요 천기의 움직임이라고 규정했다. 성정에 상대되는 말로 '議論'을 들 수 있다. 의론은 따지고 비교하고 생각해서 결론에 도달코자 하는 사고활동을 말한다. 是非를 가리고 世俗化하고 自私心を 동원하기에 利害 관계에 빠져들게 되어 순수한 상태, 자연의 상태 '天'의 상태를 떠나게 된다. 이보다 못한 시인은 남의 것을 훔내나 내려고 드니 더더욱 詩같은 詩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다.

天機란 무엇인가? 機는 機械다. 기계는 사람이 작동하려고 하는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당한 시간동안 계속 절로 돌아가게 된다. 상황이 변했는데도, 상황을 변화시켜야 하는데도 부질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곧 自律性, 自作主率力이 없는 상태에서의 외부에서 주는 힘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는 것이다. 自力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생명이 짧고 생명이 짧기에 수명이 오래지 못하다.

여기 비하면 천기는 하늘의 기계이기에 自力을 自力으로 생산하여 돌리는 기계이기에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된다. 械心이 없이 작동하기에 생명이 장구한 것이다. 기심은 기회를 엿보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마음씨를 가리킨다. '必有事焉, 而勿正'³⁾의 '正'의 심리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시를 지어서 남으로부터 칭찬을 듣고자 하는 욕심이 일어나거나, 시집을 내어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거나 하면 이는 벌써 시인이 좋아하는 시를 칭찬이나 돈의 아래에 놓게 되는 것이어서 진정한 시인, 진정으로 시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시를 쓰는 시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시인은 시 그 자체를 짓는 것이지, 시 그 자체를 지어야 하는 것이지, 칭찬을 듣기 위한 시, 돈을 벌기 위한 시를 지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만일 그런 시를 짓는다면 이는 本末이 뒤바뀐 것이다. 그러고서도 시인으로 자처하기를 좋아한다면 이는 자신을 속이고 동시에 남도 속이는 게 된다. 성정과 천기는 거짓과는 거리가 멀다. 참 마음이다.

2) 同註 1)

3) 孟子 公孫丑 上

朴趾源(A.D 1737-1805)의 경우를 보면 역시 진실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무관은 조선 사람이다. 산천과 풍기의 지역 특성이 중국과 다르고 언어와 풍속은 한·당 시대가 아니다. 만약 중화를 본받고, 한·당의 풍모를 답습한다면 나는 그들이 본받는 숨씨는 더욱 교묘해지지만 뜻은 실로 비열하고, 외형은 더욱 비슷해지지만 말은 더욱 거짓될 뿐임만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가 한쪽 구석에 있지만 역시 천승 제후 나라이다. 신라·고려가 비록 검소했으나 백성들에겐 아름다운 풍속이 많았으니 그들의 말을 글로 적고, 그들의 노래를 운율로 적어서 자연스레 무늬가 이루어져서 참된 찬가가 나타난다. 답습하지 않고,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의 현재 상황에 편안한 자세로 일에 임하기가 엄정하니 오직 이 시가 그런 것이다.

아아! 시경 3백편의 시에는 새·짐승·풀과 나무의 이름없는 게 없고, 시골의 남녀들이 주고받는 말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패·회 지역은 풍속이 각각 다르고, 강·한수 물가에 사는 사람들의 풍속이 각각 다르다. 때문에 시를 채집하는 사람이 열국의 풍으로 삼아서 그 성정을 조사하고, 노래와 풍속을 징험하면 이 시가 예스럽지 않음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만약 성인이 중화에 태어나게 해서 열국의 풍속을 관찰할 때 영처의 글을 살펴서 삼한 지방의 조수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고, 맥의 남자와 백제의 부녀자의 성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이를 두고 조선의 풍이라 해도 될 것이다.

今懋官朝鮮人也。山川風氣地異中華，言語謠俗世非漢唐，若乃效法於中華，襲體於漢唐，則吾徒見其法益高而意實卑，體益似而言益僞耳。左海雖僻國亦千乘，羅麗雖儉民多美俗，則字其方言，韻其民謠，自然成章，眞機發現。不事沿襲，無相假貸，從容現在，卽事森羅，惟此詩爲然。

嗚呼！三百之篇，無非鳥獸草木之名，不過閭巷男女之語，則邨閭之間，地不同風，江漢之上，民各其俗。故采詩者以爲列國之風，攷其性情，驗其謠俗也，復何疑乎此詩之不古也？若使聖人者作於諸夏，而觀風於列國也，攷諸嬰處之稿，而三韓之鳥獸草木多識其名矣。貉男濟婦之性情可以觀矣，雖謂朝鮮之風，可也。⁴⁾

4) 燕巖集 卷之七 別集, 鍾北小選, 序, 嬰處稿序, 景仁文化社, 1982.3.15

중국과 조선을 지역과 세대, 곧 공간과 시간, 宇와 宙를 나누고 중화 한 당의 것만 흉내내면 體와 法은 높고 또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뜻과 말은 더욱 낮고 거짓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나라가 중국의 왼쪽 구석에 자리잡고 있지만 역시 천승 제후국이기에 검소한 생활이지만 아름다운 풍속이 많다고 단언했다. 참된 기동력(天機)이 발동하여 자연스레 빛을 발현하게 된다고 보고 무관의 시를 그렇게 해서 지은 것으로 단정 지었다.

패·회의 노래 역시 중국의 풍요이듯이 맥 지방의 머슴아들과 백제의 아낙들이 그들의 성정을 노래한 것이라면 이 또한 조선의 풍요라고 할 수 있으니 성인이 다시 태어나도 이를 부인하지 못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런데 당시 소위 士大夫 특히 권력을 쥐고 있는 大夫와 거기 추수하는 비루한 士人들은 세속적 이해에 빠져서 중화만이 최고이고 3백편 이외에는 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행세하려 했으니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나 하고 반성했다. 참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繼之者善, 成之者性’이라고 했다. 이 자연생명세계의 활동, 자연우주 생성소멸의 변동불거를 계승하는 게 곧 善이고 美이다. 이런 생명의 자기 활동에 따라 成性的 個體化가 이루어지는데, 이 개체는 자연우주의 생명이 자기전개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무수히 생겨나고 또 자신을 퇴장시킨다. 이 개체의 生滅과정은 普遍化의 과정이고 이런 개체가 여럿 상호작용하면서 더 큰 보편화의 과정을 걸어가는데 이것이 생명전개의 과정,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풍도 자신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전개하기에 중국의 풍은 중국에서 보편화의 과정을 거치고, 조선서는 조선서의 보편화 과정을 거친다. 양쪽의 보편화 과정이 상호 교류하면서 더 큰 보편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이런 원리의 발현(眞機發現)으로 ‘自然成章’ 되기에 거짓이 없다고 봤을 것이다. 풍의 정신의 이런 보편화 과정은 바로 人文精神 그 자체의 보편화 과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박지원은 이런 원리의 작용을 ‘字其方言, 韻其民謠’라고 하여 漢字漢文을 독점하고 있는 當權派 大夫에 대항하고, 三百篇에 매몰되어 있는 大夫에게 ‘民謠’로 경종을 울렸던 것이다. 곧 조선의 풍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이 ‘諺文’으로 기록된 문학에까지 확대되어 갔으니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韓文詩歌의 경우

金天澤의 주장을 참고해 보기로 한다.

옛날 음강씨 적에 사람들이 수증다리병을 얻었으나 노래와 춤을 배워 고쳤으니 노래와 춤이 이렇게 생겨났다. 옛날에 진청과 한아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었다. 진청의 노래는 숲의 나무를 흔들었는데 그 울림이 떠다니는 구름을 멈추게 했다. 한아의 여음은 대들보와 기둥을 휘어 감은 채 사흘을 끊어지지 않았다. 노나라 우홍이란 사람은 소리를 내어 들보 위의 먼지를 날려 버렸다.

우리 나라 사람이 지은 가곡은 오로지 방언만 쓰고 간간이 문자를 섞었으나 언문으로 세상에 전했다. 대개 방언을 사용함은 그 나라의 풍속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가곡이 비록 중국의 악보와는 견줄 수 없지만 역시 보고들을 만한 게 있다. 중국의 소위 노래란 것은 곧 소악부와 새 소리로, 관현에 의해 모두 연주된다. 우리 나라의 것은 우리의 소리로 내어 문자로 어울렸으니 이것이 비록 중국 것과는 다르나 만약 그 정경이 모두 악보에 실려 화음을 이루어 듣는 이들을 영탄하게하며 춤추게 하는 면에서는 모두 하나이다.

무릇 문장 시율은 세상에 간행해서 영구히 전해서 천년을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지만 노래 같은 것은 화초가 바람에 피고 지고, 새나 짐승들의 듣기 좋은 소리가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한 때 입가에 불려지나 저절로 가라앉아 후세에 없어지기 일쑤이니 아깝지 않은가?

고려말로부터 국조 이래로 이름난 사람 훌륭한 선비 및 여염집 아낙네 등 이름 없는 사람들의 작품을 일일이 모아서 틀린 것을 바르고 잘 베껴서 한 권으로 정리하여 청구영언이라 이름하고 당세의 호사가로 하여금 입으로 읊조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펼치고 눈으로 봐서 넓게 전하기를 도모한다. 남과거사는 적는다.

昔陰康氏之時，民得重聽之病，學歌舞以解之，歌舞之出自此始焉。古之秦青韓娥善歌者。秦青聲振林木，響遏行雲，韓娥餘音繞樑三日不絕，魯人虞興，聲發盡動梁上塵。我東人所作歌曲，專用方言，間雜文字，率以諺書，傳行於世。蓋方言之用在其國俗不得不然也。其歌曲雖不能與中國樂譜比並，亦有可觀而可聽者。中國之所謂歌即古樂府，新聲被之管絃者，俱是也。我

國則發藩音協之文語 此雖與中國異，而若其情境咸載宮商諧和，使人詠歎淫佚，手舞足蹈，則其歸一也。

夫文章詩律，刊行于世，傳之永久，歷千載而猶有所未泯者，至若永言似花草榮華之飄風，鳥獸好音之過耳也。一時諷詠於口頭，自然沈晦，未免湮沒于後，不慨惜哉，自麗季至國朝以來，名公碩士及閭閻秀無名氏之作，一一蒐輯正訛繕寫，釐爲一卷，名之曰 青丘永言，使凡當世之好事者口誦心惟，手披目覽，以圖廣傳焉。南坡居士識。⁵⁾

수중다리병을 노래와 춤으로 치료한다고 함에서 노래와 춤의 힘을 얼마나 대단하게 믿고 있나 하는 것을 짐작할 만하다. 특히 노래는 홀러가는 구름도 멈추게 할 수 있고, 들보위의 먼지도 날려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수중다리병에 걸린 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方言을 專用하고 文字를 섞어서 기록했으니 諺書로 한 것이다. 士大夫는 文字를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永言은 文章詩律과 달라서 화초가 돌개바람에 날아가고 새, 짐승들의 소리가 귀를 스치고 지나가듯 하기에 諺書로 기록한다고 했다.

民의 병을 안스러워하는 金天澤의 마음은 인문정신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名公碩士들은 文章詩律로 자기들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만 民은 그럴 힘이 없다. 그래서 永言에만 의존하는데, 세월이 가면 잊혀지고 잊혀지면 없어지기에 기록하려 했다. 名公碩士가 文章詩律만 하면 되지 왜 民이 즐기는 永言에까지 침입했느냐고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사실은 명공석사도 문장시율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언서로 된 方言으로 된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것 역시 보편화의 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인문정신의 자기 신장 자기 결실의 보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歌에 비해 우리의 노래는 관현에 없어서 연주하지는 않지만 情境 곧 노래하는 사람의 性情과 노래하는 대상이 서로 어울려서 노래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한데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노래나 일반이란 인식이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나 우리 나라 사람이나 사람임에는 매 한 가지란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三百篇

5) 沈載完 編, 校本 歷代時調全書, 1228頁, 世宗文化社, 1972. 7.15

이 소중하듯 靑丘의 永言도 귀중하다는 생각이다. 문학 예술의 보편적 가치는 사회의 힘을 배경으로 분류하는 계급의 여하나, 그 힘(대부분이 출발에서는 폭력)에 의해 구획된 국경 따위는 초월하게 된다. 이것 또한 인문 정신의 자연적인 추세이다. 김천택은 靑丘의 永言이란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절대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方言 諺書로 기록했던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한문으로 난해한 이론을 전개하여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었던 학문보다 오히려 실제적 효과는 더 컸다고 할 수도 있다. 龍飛御天歌가 권력 영속화 의도에서 지은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洪大容(1731~1783)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노래는 사람의 정을 말로 나타낸 것이다. 성정은 말을 따라 움직이고 말은 문자로 형상화한다. 이렇게 생겨난 것을 노래라고 한다. 숨씨의 유무를 버리고, 선과 악도 잊은 채 자연스럽게 천기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훌륭한 것이다. 그렇기에 시경의 국풍은 시골 거리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흠뻑 젖게 하는 교화가 있고, 풍자의 의미도 있다. 강구요의 진선진미함만은 못하지만 참으로 당세 사람들의 참된 바른 성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제후 나라가 보고하고 천자 나라의 태사가 채집해서 관현을 가지고 잔치음악으로 이용하기에 학교에서 거문고 타고 글 읽는 선비와 패랭이 쓴 시골 농부들도 함께 즐기면서 착한 마음을 우러나게 해서 착해지면서도 자신은 의식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시 교육이 아래로부터 위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까닭이다.

주나라 이후로 중국과 오랑캐가 섞여서 방언이 나날이 변하고 풍속이 각박해져서 거짓이 나날이 불어났다. 방언이 변해서 시와 노래가 체를 달리했고, 사람의 거짓된 마음이 늘어나서 성정과 글이 서로 어긋났다. 때문에 성물의 교묘함, 격운의 고하 따위는 치밀하게 애쓸수록 자연스러움을 자주 잃게 되고 이치는 바르게 따지지만 천기를 더욱 많이 잃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풍아를 계승하고 나라를 교화하려고 한다면 한참 멀리 떨어진 게 아니겠는가?

歌者言其情也. 情動於言, 言成於文 謂之歌, 舍巧拙忘善惡, 依乎自然, 發乎天機, 歌之善也. 故詩之國風多從里歌氓謠, 或囿涵泳之化, 亦有諷刺之

意. 雖有遜於康衢謠之盡善盡美. 固皆出於 當世性情之正也. 是以邦國陳之大師採之, 被之管絃而用之宴樂, 使庠塾絃誦之士, 田野櫛櫛之氓, 俱得以歡欣感發, 而日遷善而不自知. 此詩教之所以自下達上也.

自周以後, 華夷雜糅, 方言日以益變, 風俗澆薄, 人僞日以益滋, 方言變而詩與歌異其體, 人僞滋而情與文不相應. 是以前聲律之巧 格韻之高, 用意雖密而愈失其自然, 理致雖正而愈喪其天機, 欲以此而紹風雅而化邦國, 則不亦遠乎.⁶⁾

이 글에서 우리는 홍대용이 不自然스러운 것, 天機에서 나오지 않은 것 등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다. 周 나라 이후로 중화와 오랑캐들이 서로 섞여서 方言이 날로 변화했고, 풍속이 각박하고 흐려져서 사람의 거짓·위선이 날로 늘어났다고 개탄했다. 方言이 변해서 詩와 歌가 체제를 달리했다고 했는데 이는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方」言의 方이 보편화 과정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그 보편화의 추세에 참여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詩와 歌가 體를 달리했다고 하는 것은 方에 方言으로 시와 가를 짓고 활용하려는 욕구와 역량이 증대했음을 뜻한다. 중화도 사람이요 방국도 사람일진대 중화가 좋아하는 것 방국이라고 싫어할 게 없다는 생각, 이 생각이 바로 보편심성이라고 하겠다.

사람의 거짓이 증가하면서 情과 文이 서로 어긋나서 정교한 성율적 장치와 의도적인 격운의 고상함에 대한 노력은 사실 자연스러운 성정을 잃게 되고 이치를 아무리 바로 잡는다 해도 천기, 곧 소유와 존재 둘 중에서 존재의 측면을 보장해 주는 양심인 천기가 손상된다고 했다. 손상된 천기 부자연스런 의식으로 무슨 참된 시나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眞이 아닌 '僞' 곧 僞이 죽기로 기를 쓰고 眞을 가장하고 眞을 독점하려는 태도로는 풍아의 遺意도 이룰 수 없고 나라도 교화시킬 수 없다는 게 홍대용의 생각이다. 詩經의 國風이 시골 순진한 사람들의 歌謠이듯이 우리나라 시골 순진한 사람들의 가요도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집권세력들은 詩經의 순진한 國風으로 자신들의 僞와 僞를 가리려 하지만 한 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진 몰라도 영원히 속일 순 없다. 따라서 집권세력을 향해서 시

6) 漢軒書 上冊, 文集, 序, 大東風謠序

경의 국풍을 긍정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요·풍요를 긍정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힘센 사람이 좋아하는 것, 예쁘다고 느끼는 것은 무조건 좋아 보이고 예뻐보이는 것은 사람의 常情이다. 그러나 이 상정이 正常이 아니고 俗常으로 타락할 때 俗物的美意識에 머무르고 말게 된다. 힘있는 중화의 집권세력이 좋아하고 예쁘게 느끼는 것은 아름답고 眞實되게 보이고, 우리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진솔한 감정을 담은 풍요는 그렇지 않게 보인다면 이야말로 人僞이다. 正常的인 美意識을 회복하라는 충고라고 할 수 있다. 보편성에 대한 긍정을 보이라는 요구이다. 곧 인문정신을 긍정하라는 요구이다.

Ⅲ. 結 論

李成桂가 私有物로 여겼다고 볼 수 밖에 없는 朝鮮朝 5백여 년을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으로 나누어 볼 때 임·병양난 이전은 갖가지 선전과 粉飾으로 實이 노출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로는 파탄이 생겨 진짜로 實이 터져 나왔다고 볼 수 있다. 良心的인 文士·書生들이 自反의 계기로 삼아서 뼈아픈 자기성찰을 하게 되었다. 朱子學의 修道論에서 「存養·省察」이 유명한 것은 자명하게 된 시절이었기에 성찰이 필수적이었으나 집권세력은 그 자성의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본다.

그래서 良心的인 人士들이 眞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時空을 통틀어서 實을 잘 써먹는 부류는 피지배 부류들이기보다는 지배세력이었다. 따라서 實을 眞으로 가장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 세상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나와서 實을 누르고 眞을 잡고자 하는 것이다. 眞은 自然이고 天機이다. 性情이 발라야 하고 情과 文이 相應해야 한다. 이치를 바로 잡는다고 하다가 타고난 본연의 모습을 파괴하기 일췌이다.

따라서 詩歌를 짓고 노래할 때에 自然, 眞性情, 天機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生命存在는 正直을 그 본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때의 歪曲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의 왜곡은 불가능하다. 또 생명력의 본성은 확대 실현을 그 본래 기능으로 가지고 있기에 특정 시공, 특정 인물들의 특정한 감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편성을 그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생명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正直·眞實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기에 언제나 眞을 누르고 眞을 살리게 된다. 생명은 眞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에 인용한 四人의 견해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보편성을 공인하고 있기에 그만큼 생명력 있는 호소력있는 외침으로 살아남게 된다.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 정신적 원동력이 바로 인문정신이다. 인문정신은 편협한 윤리도덕도 포함하는 그런 정신이다. 자신을 늘 새롭게 하고 진실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정신이다. 詩의 정신이고 詩人의 정신이다.